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인로 양성
만민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왔느니라
마태복음 4:17

주간충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대한예수교장로회 충현교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 2006 충현교회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 양재웅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내일(25일), 성탄절 예배
오전 9시 ~ 11시
가족연합예배

성탄절 예배 메시지

크리스마스의 기적

(누가복음 2:8~20)

크리스마스는 기적으로 가득한 날입니다. 그리스도인이려면 예수님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몇 주 동안 여러분은 어떤 기적에 대해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것이었습니까? 여러분은 천사의 음악을 들어보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달려간 목자들처럼 가슴 벅찬 흥분을 느껴보셨습니까? 어쩌면 여러분은 이 기록한 기적의 일부분, 아니 전체를 놓쳐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이 세상이 추구하는 크리스마스의 분위기가 여러분의 시선을 진실로부터 멀어지게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크리스마스의 기적, 그 실체이신 예수님을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적의 메신저, 천사들 천사들은 경이로움에 이끌려 영광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처럼 한 천사가 목자들에게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10,11)고 전한 후, 홀연히 허다한 천군이 나타났습니다. 천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라고 노래하는 것은 전혀 새로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이라는 말이 덧붙여졌다는 사실입니다. "더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라는 말로는 충분히 않았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가장 높은 영광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은 적인 하나가 회개하는 것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 앞에 기쁨이 된다고 말합니다(눅 15:10).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들의 기쁨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한 천사를 보내어 사가라에게 기적에 관한 몇 가지 소식을 전해 주었고(눅 1:13,17), 마리아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했으며(눅 1:30,31), 요셉에게도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마 1:20,21). 천사들은 하늘과 땅을 오가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천사들이 얼마나 온 열정적이며 찬양했는지 상상하시겠습니까?

기적의 증인, 목자들의 찬송과 전도 목자들은 경이로움에 이끌려 그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 땅에 오실 때 하늘의 천사들만 흥분에 휩싸여 활발히 움직였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서 동일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눅 2:15). 놀라운 소식에 대한 경이로움에 이끌려 목자들은 구유를 찾아 달려갔습니다(눅 2:20). 복음은 비천한 목자들에게 임했고 그들은 그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머릿속에 한 번 그려 보십시오. 목자들은 늘 하던 대로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서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었겠지요. 그때 갑자기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들 앞에 한 천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는 이 놀라운 소식을 여러분께 알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반응은 어떤입니까? 목자들과 같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발견한 후 다른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기 위해 갔습니다. 그들은 크리스마스에 일어난 이 모든 기적에 대해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크리스마스의 기적에 대해 이야기합니까? 혹시 선물에만 온통 마음이 쏠려 있지 않습니까?

기적의 증인, 동방박사들의 믿음 동방박사들은 경이로움에 이끌려 아기 예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의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열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마 2:11). 이 방방이들은 크리스마스의 기적과 직접적으로 관련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 앞에 서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어디서 왔으며, 몇 명이 나 되는지, 또 언제 도착했는지에 대해 말해 주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예물을 드렸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보물을 드리기 위해 자신의 가족과 집을 떠나왔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메시아를 믿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습니까? 여러분은 진실로 메시아를 믿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예수님께 회화를 드리기 위해 가족과 집을 떠날 수 있었습니까?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은 천사들과 목자들, 그리고 동방박사들처럼 기대로 두근거리습니까?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과 나눌 만한 크리스마스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진정한 신자입니까? 이번 크리스마스에 여러분이 목격한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었습니까! 오늘은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 기적의 기쁨과 흥분이 여러분의 심령에 충만하길 바랍니다. 이 예배를 마치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로 가 있을까요? 이 세상으로 가 있을까요? 아니면 놀라운 하늘로 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 깊이 묵상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 오신 것은 바로 죄인인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그로 인해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진리를 믿으십시오. 아멘.

*영아·유아·유치부는 오전 11시에 자체 예배

*오늘, 찬양예배 시에 제6차 학습세례식
(유아세례는 오후 3시 개별로)

*찬양예배 후에 공동의회 (세례교인은 모두 참석 바람)

Do Not Fear, I Will Help You

⁽¹³⁾ *"For I am the LORD your God, who upholds your right hand, Who says to you, 'Do not fear, I will help you.'* ⁽¹⁴⁾ *"Do not fear, you worm Jacob, you men of Israel; I will help you," declares the LORD,* and your Redeemer is the Holy One of Israel. ⁽¹⁵⁾ *"Behold, I have made you a new, sharp threshing sledge with double edges; You will thresh the mountains, and pulverize them, And will make the hills like chaff.* ⁽¹⁶⁾ *"You will winnow them, and the wind will carry them away, And the storm will scatter them; But you will rejoice in the LORD, You will glory in the Holy One of Israel. (Isaiah 41:13~16)*

Today is the last sermon for the year 2006. Did you deny yourself, take your cross, and follow Jesus each day this past year? I already know the answer, so if you are feeling sad and depressed you need God's word, which says, "For I am the Lord your God, who upholds your right hand, who says to you, 'Do not fear, I will help you'" (v. 13). Through your faith in Jesus Christ, God is not only with you, but He is there to help you. You need help because no one can travel through this life and enter heaven without the Lord God. This world is a hostile place for believers, but you do not need to fear for your Lord will indeed help you.

In today's Bible verses, Isaiah reminds God's people about His greatness. Judah was a very weak nation at the time. God said to them, "Do not fear, you worm Jacob, you men of Israel; I will help you, and your Redeemer is the Holy One of Israel" (v. 14). God called His people a worm because they were feeble, despised, and stepped on by the nations of the world. Their sin brought them down to the lowest of levels; even so, there was salvation available through repentance. God raises the weakest people to use as His instrument. Jesus Christ did not choose His twelve disciples from amongst the smartest, bravest, or richest of men, but from amongst the humble. He, Himself, was born in a manger and died on a cross. When the temple curtain tore in two, the primary church went to the gentiles. Their persecution caused them to scatter abroad, like worms, but God is with the humble. He helps the weak.

God provided His people with a special tool, "Behold, I have made you a new, sharp threshing sledge with double edges; you will thresh the mountains and pulverize them, and will make the hills like chaff" (v. 15). Do you believe it? Can you imagine how much power it takes to turn mountains into pieces of grain and hills into piles of leaves? God can use you, even though you are a worm. Jesus told His disciples, "All authority has been given to Me in heaven and on earth" (Mt. 28:18). Jesus has the power my friend! He will help you to go out into the world and make disciples of all the nations. Not only that, but He promises, "I am with you always, even to the end of the age" (Mt. 28:20).

The one hundred and twenty people who gathered together in Jerusalem, awaiting direction from the Lord, were minority people. They were all worms, but Jesus picked them up, and a wonderful thing happened. They received His power. As they humbly bowed themselves in prayer, the Holy Spirit came and filled each one. The Bible tells us that heaven fills with joy over the salvation of one soul. That day, about three thousand souls were added (Acts 2:41).

God made a double edged sword, but you do not believe it. He is still building His church in this world, and people still need to see the church's power. Sadly, most of today's churches do not have the

power because they get tied up and involved with earthly things. The foundations and doctrines of believers all over the world are shaking. Most Christians have a sleeping spiritual life because they do not believe the Word of God. Listen, the Word of God needs to be on fire in your heart, like the burning bush that Moses saw.

If you listen to God, you will have fellowship with Jesus Christ. God said, "Do not fear, I will help you." He is your Holy One. He wants to fellowship with you. Do you want to fellowship with Jesus, or with the popular and rich? You are a sinner, and you need the blood of Jesus Christ. You need His care and His love. Jesus prayed for us, "Sanctify them in the truth; Your word is truth. As You sent Me into the world, I also have sent them into the world. For their sakes I sanctify Myself, that they themselves also may be sanctified in truth" (Jn. 17:17-19). Are you sanctified in the Word of God? Do you read your Bible? God wants to send you into the world, so that you can use whatever it is you do to proclaim the gospel. He wants you to take your fellowship with Him to others, "Day by day continuing with one mind in the temple, and breaking bread from house to house, they were taking their meals together with gladness and sincerity of heart, praising God and having favor with all the people. And the Lord was adding to their numbers day by day those who were being saved" (Acts 2:46&47).

God will help you if you listen. You will have victory with faith, "You will winnow them, and the wind will carry them away, and the storm will scatter them; but you will rejoice in the Lord, you will glory in the Holy One of Israel" (v. 16). Peter and John told their persecutors, "Whether it is right in the sight of God to give heed to you rather than to God, you be the judge; for we cannot stop speaking about what we have seen and heard" (Acts 4:19&20). They had victory. You might lose your money, your fame, and perhaps even your freedom in this life as a Christian, but if you try to save your own life, you will lose it. Matthew 16:25&26 say, "For whoever wishes to save his life will lose it; but whoever loses his life for My sake will find it. For what will it profit a man if he gains the whole world and forfeits his soul? Or what will a man give in exchange for his soul?"

This church needs God. It is only through His power that each one of us can survive. This is the final message for the year 2006. Each one of us needs revival. Please do not be depressed or fearful. The Lord God, the Holy One, will help you to walk the narrow way, the way of the cross. Please walk into the New Year with faith, and you will have victory. With God, this church can turn the world upside down. Do you believe it? Listen to Acts 17:6, "When they did not find them, they began dragging Jason and some brethren before the city authorities, shouting, 'These men who have upset the world have come here also.'" This is the testimony of unbelievers. If unbelievers think that believers can upset the world, what do you think? 

다음 주일 설교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13)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께서 네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14) 지렁이 같은 너 아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께서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15)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를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거 갈게 할 것이라 (16)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것을 날리겠고
회리바람이 그것을 홀로 버릴 것이되 너는 여호와께 인하여 즐거워할지니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이사야 41:13~16)



김성판 목사

오늘은 2006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 일 년 동안 매순간 진심으로 회개하는 삶이 있었습니까? 매일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셨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뭐라고 대답할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마음이 슬프고 낙심되어 있다면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13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돕는 손길로 그 곳에 계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결코 그 누구도 험난한 인생을 통과 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신자들에게 너무나 가혹한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두려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약한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이사야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다는 매우 약한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아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께서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14절).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지렁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세상 나라들로부터 멸시받으며 짓밟히고 있었던 그들의 무력한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들의 죄가 그들을 가장 깊은 구렁텅이로 끌어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한다면 아직 구원의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약한 자들을 일으켜서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열 두 제자를 뽑을 때 영리한 사람들, 용감한 사람들, 혹은 부유한 사람들 중에서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보잘것 없는 사람들 중에서 택하셨고, 주님 자신도 말 구유에서 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둘로 나뉘어졌을 때, 초대 교회는 이방인들로 나아갔습니다. 핍박 때문에 그들은 사방으로 흩어져서 되었고 별처에서 여럿이지만 하나님은 비천한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약한 자들을 도우십니다.

복음 전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특별한 도구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를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거 갈게 할 것이라”(15절). 이것을 믿습니까? 산들을 부스러기로 만들고 작은 산들을 거로 만들다니 얼마나 강력한 힘입니까? 여러분이 지렁이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마 28:18).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마 28:20).

예루살렘에 모여서 주님으로부터 올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던 120명의 성도들은 연약한 무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지렁이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깨워시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권능을 받았습다. 그들이 겉손히 얻으려 기도했을 때 성령이 그들 각 사람에게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성령은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을 때 천국은 기쁨으로 가득 찬다고 말합니다. 그 날 제자의 수가 삼천이나 더해졌습니다(행 2:41).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죄우에 날선 검을 만들었지만 여러분은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계시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히 교회의 능력을 보기를 원합니다. 슬프게도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이 세상적인 것들과 관계를 맺고 세상에 얽매어 있어서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전 세계에 살고 있는 신자들의 믿음의 기초와 교리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영혼의 잠을 자고 있습니다. 깨어나십시오. 모세가 보았던 떨기나무의 불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불타올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들은 여러분의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유명하고 부유한 자와 친분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보살핌을 필요로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요 17:17-19).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은 매일 성경을 읽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님과 여러분의 교제가 다른 사람에게로 넓혀지기를 원하십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행 2:46, 47).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여러분이 귀를 기울이기만 하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승리를 주셨습니다.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것을 날리겠고 회리바람이 그것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나는 여호와께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리라”(16절).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라”(행 4:19, 20). 그들은 승리했습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우리는 돈이나 명예, 심지어 자유까지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목숨을 구하면 그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25는 말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오직 예수! 오직 믿음!

교회는 본회의 은혜로 가득해야 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살아 남을 수 있는 길은 주님의 권능을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2006년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우리 각자는 참 회개를 통한 믿음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절대로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2007년을 향해 나아갑시다.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 교회는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을 흔들며 놓을 수 있습니다. 그들을 믿습니까? 사도행전 17:6의 말씀이 예시입니다. “별건지 못하며 야손과 몇 형제를 끌고 음창들 앞에 가서 소리 질러 가로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여 지금도 이르매.”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의 증언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신자들이 세상을 뒤엎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경고 (마 2:11~15)

남편 요셉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간 마리아는 말 구유에 예수님을 낳았다.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메시야이신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셨건만 주위 사람들은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 심지어 메시야의 탄생에 대해 알고 있었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 성탄의 기쁨과 환희로 넘쳐야 할 예루살렘은 너무나 조용했다. 그러나 유대 메시야의 탄생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들은 유대인도, 사기관도, 대제사장도 아니었다. 성경을 직접 보지도 못했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적도 없었던 동방의 박사들이었다. 이들이 들은 것은 예전에 하나님께서 이사라엘을 통해서 행하셨던 놀라운 역사였다. 그리고 현재 이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별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별의 인도 따라 유대 지역까지 왔다. 현대에도 사막을 여행하는 일은 매우 어렵고 위험한 일이다. 더구나 당시에는 생명까지 내어놓아야 할 만큼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이들은 믿음을 따라 별의 인도를 받았다.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한 동방의 박사들은 말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노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볼 때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마 2:2). 이때서야 예루살렘은 동요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소동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여서가 아니었다. 특히 헤롯 왕은 자신의 권좌에 위협을 느꼈고, 종교 지도자들을 모아 야세라 굴에 대해 연구를 행하였다. 그리고 성경에서 예언된 곳인 베들레헴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마 2:5,6). 이에 해로왕은 동방박사들에게 베들레헴에서 메시야를 경배한 뒤 자신들에게로 알려달라고 부탁하였다(마 2:8). 진실로 메시야를 향한 경배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권력을 위협하는 메시야를 죽이기 위해서였다. 예루살렘의 헤롯 왕,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을 안는가? 크리스마스 시즌을 보내고 있는 우리의 발걸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사를 입은 동방 박사들의 발걸음은 베들레헴 말구유를 향하고 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진히 말씀하시는 사랑과 은총의 경고를 들었다.

신앙인들의 삶의 방향을 말씀한다 별이 떨어진 곳인 베들레헴이었다. 그곳에서 동방의 박사들은 말 구유에 누워 계신 예수님을 보았다. 이들은 초자연 초우치의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강변의 씨여 말 구유에 계신 아기들을 볼 때 경배의 가치를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 동방의 박사들에게 주신 믿음은 초자연 말 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께 무릎을 꿇게 했으며 가장 소중한 보물을 드러내 경배하게 하였다(마 2:11). 이처럼 놀라운 일을 경험한 박사들에게 하나님의 은사가 들렸다.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국외에 돌아가니라”(마 2:12). 어쩌면 동방박사들의 마음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헤롯 왕을 만나고 싶었을지도 모른다. 메시야를 찾아낸 자신들에게 받은 보물을 해 줄 것이라 고 기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님은 완전히 다른 방향을 명하셨다. 이에 동방박사들은 순종하였고 무사히 국외로 갈 수 있었다. 다대색을 향해 가던 사울은 빛이신 예수님을 만났다. 자신만의 계획과 환상에 따라 움직였던 결국 사울은 주님의 인도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행 9:5,6). 하나님께의 선지자 야벳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온 1:17). 신앙인들의 삶의 방향을 말씀하시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반응은 오직 순종이어야 한다.

핍박자로부터 구하시려고 경고를 주신다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는 핍박자로부터 그를 구하시기 위해서였다. 동방박사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였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마 2:13). 당시 요셉이 처한 형편을 생각할 때 순종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요셉의 형편은 딱지 않았다. 또한 애를 낳은 마리아에게 충분한 산후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연고도 전혀 없는 애굽으로 가기로 정말로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나 요셉에게는 오직 순종뿐이었다(마 2:14). 그러면 우리에게도 이같은 순종이 있는가? 주님은 핍박자로부터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대산간 말씀들 통해서 경고를 주시는 데 우리는 전혀 무관심하지 않은가? 이같은 모습을 진실으로 회개하자. 요셉처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고난으로 가득할 수도 있다. 아니 반드시 고난으로 가득할 것이다(요 16:33). 그러나 이 고난 속에는 참 생명이 있기에 소망과 기쁨으로 인내할 수 있다(요 10:10). 잠시 잠깐의 고난이 두려워서 마귀의 종이 되지 말라(요일 3:8).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주 예수님을 믿자! 핍박자로부터 구하시려고 경고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믿음으로 순종하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 하심이다 요셉의 순종은 “이스라엘의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 내었거늘”(창 11:1)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다(마 2:15). 지금 자신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진실으로 회개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있는가? 자기 십자가를 지며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버리고 오직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자(요일 2:15,16). 우리 삶의 기준은 오직 말씀이신 예수님이여야 한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간 속에는 참 생명이 있기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요일 2:17). 하나님의 뜻은 오직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 모든 예배와 공집회 의 정대로 빠져서 안 된다. 사랑과 은총으로 가득한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창 6:1~3). 이것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주님께로 돌아와 진실으로 회개하자(창 14:2).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님은 기도한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의 말씀은 진리니이다”(요 17:17).

영리요령으로 가득한 성탄의 계절에 우리는 어둠을 향해 가고 있으며 어떤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하나님의 경고를 들으며, 그 경고를 믿음으로 실천하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경고는 은총의 자녀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동방박사들의 삶의 방향을 인도하셨다. 핍박자로부터 요셉을 구하셨다. 결국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었다.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님께 나아와 진실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자. 이방인이 살 길이다. 세상을 향해 있던 자신의 발걸음을 돌리자 베들레헴 말 구유로 나아가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자. 아멘.

주님의 교회를 위해 믿음으로 순종하는 안수집사회



김연태 (안수집사, 안수집사회장)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마 16:18). 2007년, 우리 교회에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주님의 교회를 세우나가는 데 더욱 겸손히 순종했었습니다. ‘말’을 앞세우기보다는 ‘믿음의 순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에 우리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는데 일임할 것을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다짐하고 결심하여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걸기 쉬운 세상의 길을 향해 나아가는 저지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뿐이라는 진리를 다시 한 번 절실히 깨닫습니다(고후 13:4). 안수집사들은 종직을 맡았음에도 복음을 위해 충성하지 못하고 세상을 더 사랑했던 모습이 더 많았기에 주님께 회개할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회개하고 또 회개하셔도 여전히 내 안에서 용솟음치는 죄의 욕망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뿐임을 믿습니다. 이 보혈의 은혜로 다시 한 번 일어나 주님의 교회를 세우나가기 위해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롬 1:17).

우선 영적인 기초를 튼튼히 세울 수 있도록 기도의 불길이 모든 회원들의 심령에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모든 회원들이 모든 기도의 모임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새벽집회에 부각이 함께 나와 주님의 음성을 통해 보혈의 복음으로 무장하며, 영적 정경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1회 지회별로 금요집회 후 충현기도원에 올라가 회원들의 시선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그리고 십자가 앞에 죄인들의 모

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님께 눈물로 간구하고 있습니다(마 16:24). 또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마 16:16)이 저지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며 오직 칠그릇 같은 죄인들을 성령의 도우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기도가 밀려들며 우리 세상의 소리가 아닌,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니 저지들의 얼굴은 주님의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무엇보다도 땅 끝을 향해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을 다하기 원합니다(행 1:8). 교회와 선교 방면에 순종하여 단기 선교에 전력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여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저지들도 예수님을 따라 한 영혼을 살리는 복을 전도를 위해 더욱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것입니다. 또한 자원 봉사에도 더욱 힘쓰기를 원합니다.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와 시간을 단련하여 주님의 몸 된 교회의 모든 사일들을 직접 내 몸과 같이 청결하게 관리하는 것은 만사에 더욱 역동적으로 참여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죽음이라는 극한 상황임에도 스데반처럼 믿음으로 나아가갈 것입니다(갈 2:20). 그러나 아무리 타당한 계획과 열정이 있음에도 결국 십자가의 은총이 아니고서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도록! ‘성령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살피는 데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행 5:32).

또 물론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보혈의 은총으로 세워 주신 300여 명의 안수집사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고전 2:2). 저지들도 더욱 겸손한 주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말려진 일이 무슨 일이든 ‘나의 경험, 의견, 지식’ 보다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에만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벧전 1:2). “주님! 2007년 한 해 동안 안수집사회가 주님의 교회를 위한 성령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복음의 역사에 쓰여지는 한 일의 밀알이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도 받을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복음을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좁은 길을 걷게 하옵소서!” 아멘.

2007년 교회 주요 행사 일정

2007년 교회 주요 행사 일정

날 짜	행 사 명	주관부서	날 짜	행 사 명	주관부서	날 짜	행 사 명	주관부서
1월	겨울성경학교, 겨울수련회 (1월, 2월) 경로심방 (1월, 2월) 단기선교팀 파송 신년 감사예배 제1차 성찬식 헌신예배(예배위원회) 장기당회 선교주일	교육위원회 교구위원회 선교위원회 예배위원회 예배위원회 예배위원회 당회서기 선교위원회	5월	대심방 (3월-6월) 단기선교팀 파송 제4차 성찬식 어버이·어린이 주일(가족 연합예배) 헌신예배(교구위원회 ①) 장기당회 교역자, 장로, 안수집사, 권사 기도회 오순절(성령강림주일)	교구위원회 선교위원회 예배위원회 예배위원회 예배위원회 당회서기 당회서기 예배위원회	5 (수) 9 (주) 18 (화)	수요성경공부 2학기 개강(11/21 종강) 충원전도대 훈련(주반기)(10/24 종강) 남성구역장훈련 (11/21 종강) 교회설립주일(가족 연합예배 2, 3부) 교회설립기념 특별찬양예배 제66기 교사양성부 개강(11/25 종강) 제36기 찬양대양성부 개강(11/25 종강) 교역자, 장로, 안수집사, 권사 기도회	교육훈련원 전도훈련원 교육훈련원 예배위원회 예배·찬양위원회 교육훈련원 교육훈련원 당회서기
2월	겨울성경학교, 겨울수련회 (1월, 2월) 전반기 장학생 선발 및 지급 경로심방 (1월, 2월) 단기선교팀 파송 헌신예배 (전도위원회) 장기당회 사순절 새벽기도 시작(재의 수요일) 제1차 청지기훈련 제1차 학습세례식	교육위원회 충원장학회 교구위원회 선교위원회 예배위원회 당회서기 예배위원회 교육훈련원 예배위원회	6월	대심방 (3월-6월) 단기선교팀 파송 제직회 계절학교 교사 강습회(2회) 헌신예배(안수집사회) 장기당회 제2차 청지기 훈련 제3차 학습세례식	교구위원회 선교위원회 당회서기 제1·교육위원회 예배위원회 당회서기 교육훈련원 예배위원회	10월 10 (수) 19 (금) 24 (수) 26 (금) 28 (주)	대심방 (9월-11월) 단기선교팀 파송 헌신예배(교구위원회 ②) 장기당회 피떡주일(주제발표) 장로·집사·권사 임직예배 제3차 청지기 훈련 종교개혁주일 제5차 학습세례식	교구위원회 선교위원회 예배위원회 당회서기 예배위원회 예배위원회/당회 교육훈련원 예배위원회 예배위원회
3월	대심방 (3월-6월) 단기선교팀 파송 제2차 성찬식 헌신예배(선교위원회①) 장기당회 충원전도대 훈련(전반기) (4/25 종강) 남성구역장 훈련 (5/23 종강) 제65기 교사양성부 개강 (5/27 종강) 제35기 찬양대양성부 개강 (5/27 종강) 수요성경공부 1학기 개강 (5/30 종강) 임시당회(일꾼추천·장로, 안수집사, 권사) 일꾼후보 공고(주간충원) 공동의회(일꾼후보·장로, 안수집사, 권사)	교구위원회 선교위원회 예배위원회 예배위원회 당회서기 전도훈련원 교육훈련원 교육훈련원 교육훈련원 교육훈련원 당회서기 인사위원회 당회서기	7월	여름성경학교, 여름수련회(7월, 8월) 단기선교팀 파송 제5차 성찬식 맥주감사절 예배 헌신예배(권사회) 장기당회	교육위원회/각기 선교위원회 예배위원회 예배위원회 예배위원회 당회서기	11월 4 (주) 7 (수) 18 (주)	신년도 예산안 심의 신년도 직분자 심의 대심방 (9월-11월) 단기선교팀 파송 제7차 성찬식 헌신예배(교역자, 장로, 안수집사, 권사) 장기당회 추수감사주일(가족연합예배 2, 3부) 추수감사주일 특별찬양예배	위원장협의회 인사위원회 교구위원회 선교위원회 예배위원회 예배위원회 당회서기 예배위원회 예배위원회
4월	대심방(3월-6월) 단기선교팀 파송 총려주일(가족 연합예배 2, 3부) 피떡자 교육개강 (9/29 종강) 교단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헌신예배(1·2·3 교구위원회) 장기당회 성 금요일 집회(제3차 성찬식) 부활주일 부활주일 특별 찬양예배 제2차 학습세례식	교구위원회 선교위원회 예배위원회 교육훈련원 예배위원회 예배위원회 당회서기 예배위원회 예배위원회 예배위원회 예배위원회	8월	여름성경학교, 여름수련회(7월, 8월) 단기선교팀 파송 후반기 장학생 선발 및 지급 헌신예배 (선교위원회 ②) 장기당회 제4차 학습세례식	교육위원회/각기 선교위원회 충원장학회 예배위원회 당회서기 예배위원회	12월 5 (수) 12 (수) 16 (주) 20 (목) 21 (금) 23 (주) 25 (화)	절기구제(성탄) 단기선교팀 파송 장기당회 임시당회(결산/예산) 특별제직회(결산/예산) 은혜자 시상 성탄축하 찬양의 밤 성탄축하 기념음악 제6차 학습세례식 공동의회(결산/예산) 성탄절 감사예배	봉사위원회 선교위원회 당회서기 당회서기 당회서기 인사·행정위원회 제1·교육위원회 찬양위원회 예배위원회 당회서기 예배위원회

마리아, 시므온, 안나를 만나며...

크리스마스 메시지를 듣고 찬양을 드리는 내내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 봅니다. 그 거룩한 밤,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어서 해매던 죄인을 위해 창조주 하나님께서 오신 그 밤, 잠들었던 베들레헴의 작은 고을은 빛으로 오신 메시아의 탄생을 알지 못하고 잠들어 있던 밤이었습니다. 그렇게 잠들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메시아를 진정으로 만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은총이 내렸습니 다. 비록 이 땅에서는 좁은 길, 험난한 길을 걸으며 가장 작은 자로 기억되었지만, 눈을 열어 그들의 삶을 보면 '영원'에 기록된 가장 복된 삶을 살았던 은총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예수님을 일대한 마리아,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고 결국 그 기다림 끝에 성령의 감동으로 아기 예수를 품어 안을 수 있었던 시므온, 과부인 지 84년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기다린 안나. 어떻게 보면 그들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보 같은 삶이었지만, 정말로 그들의 삶은 영원에 기록된 은총의 삶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성경에서 마리아, 시므온, 안나를 만났어요. 그들은 비록 이 땅에서는 힘들었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며 바보같이 살았지만, 정말로 그들의 삶이 복된 삶을 알게 되었어요. 주님! 저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정말로 복된 삶이 무엇인지,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 몰라요. 주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영원의 삶이 되게 하시고, 나의 삶의 발자취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으로써 영원의 흔적으로 남는 삶이 되도록, 나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생명으로 옮기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은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메시아를 향한 마리아, 시므온, 안나의 소망이 그들로 하여금 영원의 길을 걷게 하였던 것처럼 제게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좁은 길을 걸으며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향한 믿음, 소망, 사랑의 길을 걸을 수 있게 해주세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라는 말씀을 가슴에 품고 다시 오실 구주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우경은(대림부)

주님께 춤추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머리로만 주님의 은혜를 알고 있던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죄악의 굴레에서 건져 주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깨뜨리시며, 사랑하고 계심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신비로운 역사를 주신 하나님께 어찌 찬양 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한 해를 '왜', '어떻게' 기쁘게 할렐루야 하며 찬양 드리는지 모르면서 보내기 전에, 주님께서 회개시키는 역사를 각 개인에게 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죄의 구렁텅이에서 구원의 빛으로 이끌어주시는 주님의 권능의 손을 잡고, 충현의 모든 영혼들이 한마음으로 진실로 감사하며 기쁘게 찬양 드리기길 기도합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으로 사랑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금요일 회로 행복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께 더 아름답게 찬양 드리고자 연습하는 그 과정이 정말 기쁘지 않습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 죄를 사하시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밤'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에 들어갈 그 날까지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라며 찬송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팔 벌려 주님께 춤추며 달려가게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소망하며 기다립니다.

박소연(청년 1부)

오직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

금요일집회에서 크리스마스 메시지로 선포되는 말씀 중에 나를 깨우시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기다렸던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이다. "메시아를 보리라"는 약속을 간직한 마리아, 안나, 시므온 그들은 주님 말씀대로 결단해 주의 구원을 눈으로 보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된다. 성경을 보면 그들은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려고 늘 기도하던 사람들. 눈과 귀에 보이는 증거들이 없어도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약속이 임할 것을 기다리며 살았던 그들의 모습이 나에게 도전이 된다.

한 동안 삶에 지쳐 감사가 없어지고 불평하며 육체의 고통에 대해서만 갈구해 왔었는데, 어느 순간 나의 문제가 영적인데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부족한 나를 찬양하는 자로 세워 주셔서 찬양을 준비하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조금씩 알아가게 되어 감사하다. 날 지으시고 '보기에 참 좋았다' 하셨을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맘을 헤아리며 오늘도 내 삶의 터전에서 나를 부인하며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 오실 그 날을 기다리며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다.

이성민(집사, 16교구)

MERRY CHRISTMAS

김성관 목사님께

주님 오신 날을 누구보다 더 기다리신 목사님을 뵈매다
그 모습이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 하고 계시는 목사님의 말씀들 들을때마다
세상의 것에 전혀 매이지 않는 그 자유와 기쁨과 풍성한 그 은혜가 저
도 늘 사모가 됩니다. 저도 그런 은혜가운데 주를 다르게 해 달라고 늘 기도에 힘
쓰고, 진정 주만 내 모습을 보게 해 달라고 순간순간 기도합니다. 구원받은 저를 매순간마다 가르치신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인생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군요. 요즘은 우리 사모님 뵈기가 오래되었습니다.

여기 책 한권 정말 은혜가 돼서 보내드립니다. 혹 시간이 날 때 보시라고... 저의 기도 중 한 가지는 19세기
밀음의 거장들같이 이 시대에 또한 미래에 이 땅과 이 백성 가운데 쓰임받는 종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또 그 뜻이 이뤄지길 기도하겠습니다. 김성관 목사님, 영육의 강
건함으로 저희를 잘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십시오. MERRY CHRISTMAS

김기도 파주에서



예수님 생일 축하 드려요!

예수님을 보내 주셔서 감사해요.

글 / 김수아(유아부)
그림 / 이다혜(유아부)

예수님 곁으로 모두 가자

친구들아.

벌써 시간이 흘러서 12월이 됐어. 친구들아, 성탄절이 무슨 날이지 아니? 성탄절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태어나신 날이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분이야. 친구들아! 우리는 예수님을 고마워하고 감사하게 생각해야 해.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조금이나마 보답하려면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만 무작정 다니지 말고 마음으로 믿어야 하는 거야. 자, 친구들아!

예수님의 곁으로

모두 가자!

지현경(소년부)



예수님을 전하는 크리스마스

세 살 때 크리스마스를 알게 되었다. 그때는 크리스마스가 '선물 받는 날'이라는 생각만 했다. 양말을 빨랫줄에 걸어 두면 원하는 선물이 생기는 그런 생각 말이다. 하지만 이제는 크리스마스에 별 생각이 없어졌다. 내가 여섯 살 때까지 산타가 주는 것으로 알던 양말이 부모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이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시면서 낫은 마귀간에 태어나신 것을 알게 되었다. 바로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나는 선물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도 무언가를 드려야겠다는 것을 느꼈다.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님을 전해야겠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지효정(중동 1부)

믿음의 흔적이 담긴 유언에 따라

2004년 2월, 故 정옥경 권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이분은 예수님을 대망하였던 안나처럼 홀로 살면서 오직 예수님의 복음만을 전하셨습니다(눅 2:26~38). 그 복음 전파를 위해서 갈 데 없는 아이를 입양하는 등 소천하시기 전까지 정도는 권사님의 삶 자체였습니다. 소천하는 그 순간에도 권사님은 자신의 전 재산을 복음을 위해서 헌금하겠다는 파산한 믿음의 흔적을 남기셨습니다(갈 6:17). 그 후 2년이 지난 지금, 고인의 조카분들이 교회를 찾아와서 고인의 유언대로 삼 천만 원을 헌금하셨습니다. 고인의 유언을 정리하였던 조카들은 넉넉지 않은 형편이어서 고인의 뜻을 그냥 모른 채 무시할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있는 조카분들도 역시 주님을 향한 귀한 믿음의 순종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롬 5:2).

은미야, 안영? 나 우리 예수님이 제일 좋아! 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제일 좋았는

려는데 이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크리스마스가 얼마 안 남았대. 그래서 나는 12월이 가장 좋아. 크리스마스가 있는 달 아니까... 은미야! 넌 언제가 제일 좋으니까? 너도 나처럼 12월을 좋아하고 함께 크리스마스를 기다렸으면 좋겠다.

그런데 혹시 너, 크리스마스의 뜻을 알고는 있어? 그리고 크리스마스 하면 제일 생각나는 게 뭐야? 난 잊잖아! 크리스마스야면 우리 예수님이 제일 생각나. 전에

데 이제는 아냐! 이제는 우리 예수님이 제일 좋아! 왜냐하면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는 내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많이 주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인시는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크리스마스에 이곳에 오셨구 또 우리를 위해 십자가도 지셨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훨씬 더 좋은거지.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그래! 그래! 크리스마스는 바로 예수님의 생일이야!

이유진(유년부)

♡ 새 가족 을 환영 합니다 ♡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2610	비룡라커	19	유년부	조현원(13)	2624	권순태	19	대학부	정일철(2)	2638	나영세	19	중동부	한준석(17)	2652	김선영	10	청년부	이기현(7)
2611	윤나형	19	청년부	정달영(16)	2625	한근주	19	대학부	정호철(2)	2639	이승훈	19	청년부	남영훈(12)	2653	전지문	19	대학부	배성민(14)
2612	불인진	13	청년부	최재진(1)	2626	이기범	19	대학부	이동훈(12)	2640	남희만	19	중동부	박수희(9)	2654	조정식	6	청년부	장지(19)
2613	오진경	19	청년부	송광우(1)	2627	김보현	2	소망부	김민우(2)	2641	양영철	1	청년부		2655	황광빛	19	대학부	황미희(19)
2614	조성환	8	청년부	김동훈(8)	2628	김복녀	2	청년부	김민우(2)	2642	박문선	19	청년부	박석선(9)	2656	이희환	19	고등부	문지훈(6)
2615	심성훈	9	청년부	김성환(9)	2629	김수향	19	청년부		2643	이무순	10	소망부	김성학(1)	2657	전미라	19	대학부	임선미(19)
2616	원광욱	19	유년부	한현식(3)	2630	라계주	19	고등부	손아영(19)	2644	김혜선	19	대학부	박정준(6)	2658	신재하	19	청년부	유복성(2)
2617	한	19	유년부	이희진(7)	2631	장승기	19	고등부	김호훈(9)	2645	김상수	15	청년부	김경훈(15)	2659	모수현	19	청년부	유복성(2)
2618	윤석철	3	대학부	윤재원(19)	2632	최은희	19	고등부	최도훈(1)	2646	이동영	19	고등부	김경훈(15)	2660	양현남	19	대학부	안지영(4)
2619	이경표	19	대학부	전선영(19)	2633	이원준	19	대학부	안분호(2)	2647	강동진	19	대학부	김도현(6)	2661	주현우	19	대학부	김지희(4)
2620	육성아	19	고등부	최지원(5)	2634	전영애	19	청년부	최예민(9)	2648	이리은보트	19	유년부	김준순(6)	2662	권호식	19	대학부	김선영(8)
2621	전경숙	13	청년부	정용학(4)	2635	김현준	19	대학부	김민재(4)	2649	이성철	19	청년부		2663	이우진	19	대학부	김현성(8)
2622	최희진	19	고등부	최현희(8)	2636	박지훈	19	대학부	전성진(7)	2650	허리라	19	대학부	한영애(6)	2664	성지영	19	대학부	권미리슬(19)
2623	권오재	19	대학부	안 윤(3)	2637	이재현	17	청년부	조종민(6)	2651	하승룡	19	대학부	김현미(19)	2665	박현근	19	대학부	김재현(4)

※ 중천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

